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7~6/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김계운그림	불교신문사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7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8	달라이 라마 화를 말하다 :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기르침	달라이 라마 / 이종복	담앤북스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지혜와 행복이 함께하는 찬불가곡 108 (1) 노래 '빛보림'	미디어공명	미디어공명
5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 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신심 깊어야 잘 보이는 화엄과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종일 스님 지음 / 무비 스님 감수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신불 50년 귀의 · 공부 회향
화장세계품 · 비로자나품' 공양
"화엄, 성불에 가장 가까운 말,
화엄경 주불 비로자나부처님"

책은 종일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공부의 회향이다. 〈화엄경(80권 본)〉 중 제5품 '화장세계품' 과 제6품 '비로자나품' 을 소개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다.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다. 세상에 널려있는 사물과 사람들도 모두가 부처다. 선도 악도 그늘도 빛도 모두가 부처다. 행복도 불행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가 부처뿐이다. 〈중략〉 일체의 모든 일, 모든 것이 모두가 오직 부처뿐이다.' 그런데 꼭 부처라고만 부르지 않고, 혹은 마음이라 하고, 혹은 진리라고 하고, 혹은 법이라 하고, 혹은 해탈이라 하고, 혹은 열반이라 하고, 혹은 화엄이라고도 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화엄이라는 말을 깨달음의 세계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하여 예로부터 높이 숭상해 불렀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세계와 내용을 잘 정리한 대표적인 경전을 우리는 〈화엄경〉이라 부른다."

'화엄(華嚴)' 에서 불법의 요체를 가장 깊게 느꼈던 종일 스님은 1967년 12월 15일(음) 창녕 영축산 청련사에 입산하여 법성 덕오당에 인도,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6년 동안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지으며 채전에서 밭작물을 가꾸어 자급자족하며 수행했다. 이후 오로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천지우주 삼라만상 진대지가 나의 전신체(全身體)" 라는 말씀과 덕오당이 내려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모두 사진으로 찍히며, 말하는 것은 녹음이 되고, 마음먹은 것은 문서(업장)가 된다"라는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다. 책은 현 사바세계 중생들을 고해에서 건져 금생의 화엄세계를 누리기를 바라는 스님의 50년 회향 불사다.

"화엄세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천지만물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이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크게는 수백 억 광년 저 멀리에 있는 무수한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화장장엄세계이다. 우리는 이들 모든 화장장엄세계에 무거운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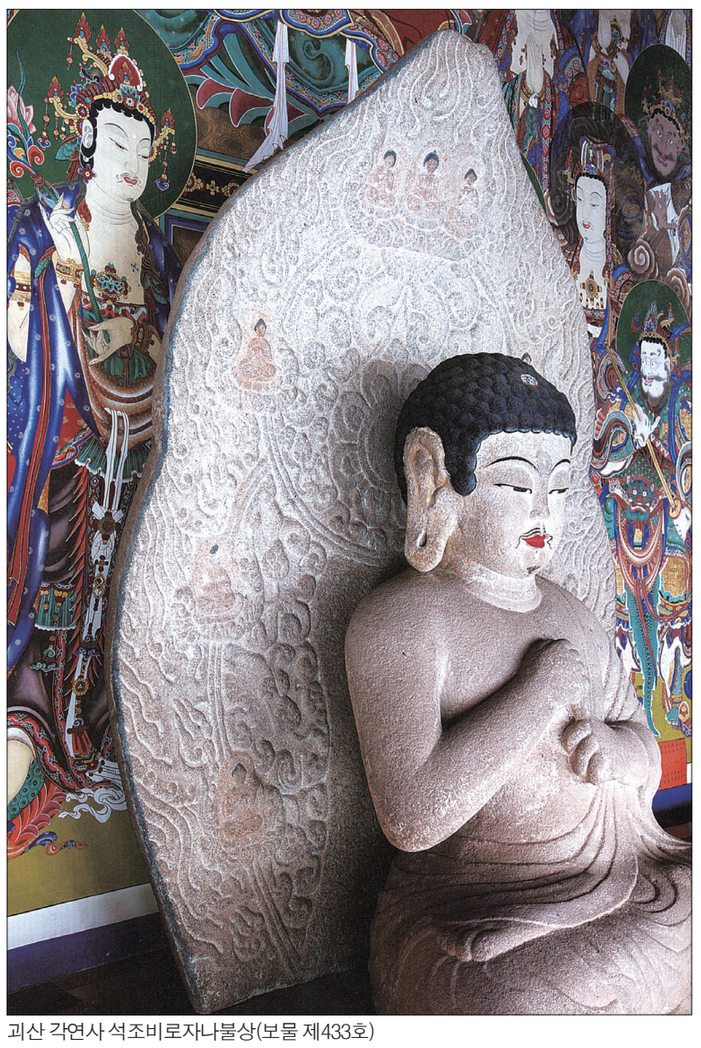
책은 '화엄세계품' 의 '이구염장 향수해' , '무진광명륜 향수해' , '금강염광명 향수해' , '화장세계의 총결' , '게송으로 거듭 밝힘' 을 통해 대중을 화엄세계로 이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일러준다.

"그 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에 세계 미진수겁을 지나고 다시 그 갑절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었느니, 그 이름이 보문정광명이니라' "

책은 '비로자나품' 을 옮겨 적으며 비로자나불의 인연을 밝힌다. 비로자나불은 불가의 많은 부처님들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청정법신을 말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이며, 경전에서 볼 때 비로자나불은 〈화엄경〉의 주인이다.

미혹에 결박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심으로 생각하고 맑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비로자나불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의 세계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公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佛法)을 닦아 익혔다. 태자는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 체험, 공양, 찬탄, 체득하여 성불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다.

종일 스님은 맺는말에서 "이상으로 〈화엄경〉 39품 가운데 화장세계품을 배경으로 비로자나품을 마무리합니다. 천지우주 삼라만상 진대지가 나의 전신체임을 확신하십시오."라고 했다.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보물 제433호)

일심삼관 종지로 회통한 〈능엄경〉 해설서



수능엄경통의 1 · 2
감산덕청 지음 / 장순용 역주
운주사 펴냄 / 2만7천원 · 2만5천원

교리와 세밀한 수행 과정까지
깊고 명료하게 해설한 주석서

〈능엄경〉 해설서 〈수능엄경통의〉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책은 명나라 4대 고승으로 불리는 감산덕청 스님의 깊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능엄경〉 주석서이다.

감산의 〈수능엄경통의〉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수행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산 스님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능엄경〉을 깊고 명료하게 해설했다. 교리와 수행 양면에서 중국불교를 집대성한 감산 스님은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능엄경〉을 읽다 크게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일심삼관의 종지를 널리 알리고자 해설서를 지었다.

〈능엄경〉은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되어 수행자들의 교과서가 된 경전이다. 비록 위경 논란이 있지만 교리적 내용과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정밀함으로 인해 예부터 수행자나 지식인들에게 널리 독송되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가에서 크게 환영을 받아 주로 선문의 스님들에 의해 많은 주석서가 쓰였으며, 우리나라 일부 선종 사찰에서는 수능엄다라니, 즉 능엄주 독송을 일과로 삼고 있을 정도다.

감산 스님의 〈수능엄경통의〉는 경전의 제목부터 살피고 있다. 흔히 〈능엄경〉으로 부르고 있는 경전의 제목은 19자(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엄경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 달하지만 오직 '수능엄' 세 글자만을 중시할 뿐이고 나머지 16자는 모두 뜻을 잡은 것이며, 제목을 일심에 갖춰진 체(體) · 상(相) · 용(用) 삼대(三大)의 뜻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 등으로 불린다.

본문은 석도안이 수립한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누고 있다. 서분은 통서와 별서로 나누는데, 통서는 법회의 인연으로 어느 경전에나 있기 때문에 '통서' 가 된다. 별서는 이 경전의 유래를 천명하고 있다. 아난이 음실에 타락하는 비천한 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생사의 세계 속에서 홀로 참(眞)과 대면한 자는 오직 애욕 하나의 일만이 중대할 뿐이니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정종분은 '수증(修證)의 문을 크게 여는 것' 과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을 보이는 것' 으로 나눈다.

유통분은 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리고 그 얻는 복의 수승함과 그 수승한 이익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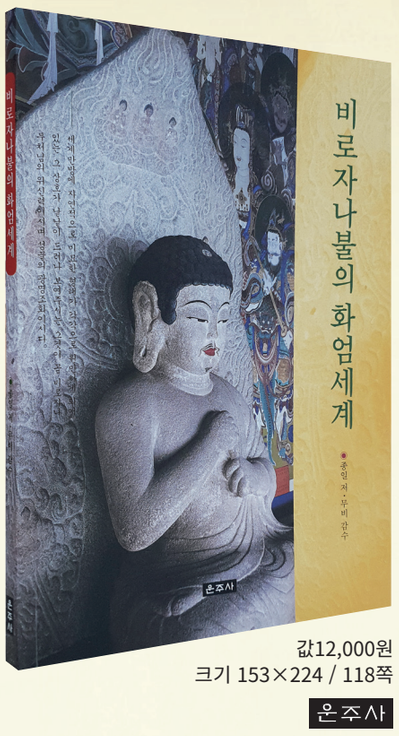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저자 권종일 스님

비로자나불이란?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세존으로부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등이 그것이다.
그 모든 부처님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佛格化)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久遠劫)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功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 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을 닦아 익혔다.
太子는 여러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難行), 공양(供養), 찬탄(讚歎), 체험(體驗), 체득(體得) 한 뒤 결국 成佛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십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現在 海印三昧 가운데 들어계시고 보현보살님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원력을 대신 대행하십니다.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